

군산지역 고객 협회 방문

지난 4월 26일 군산시수협 윤갑수 상임이사를 비롯한 군산수협 관계자, 군산지역 어촌계장 및 조선소 대표 등 24명으로 구성된 군산지역 고객방문단이 협회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검사협회의 경영혁신 우수사례 및 고객관계시스템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하여 군산수협 및 군산수협어촌계장협의회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검사협회는 이날 협회의 경영혁신사례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을 소개하여 고객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또한 검사협회는 고객과의 간담회를 열어 고객의 애로사항 청취하는 한편 지역동향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으며, 방문단은 인천항 갑문 시찰을 마지막으로 이날 일정을 마쳤다.



△ 방문단과 갯벌타워앞에서 기념촬영



△ 김성규이사장은 군산지역 방문단에게 기념품 전달하였다.



△ 방문단의 인천항 갑문 시찰 장면

세계해사대학 재학생 협회 방문

지난 4월 26일 국제해사기구(IMO) 부설 세계해사대학(World Maritime University) 재학생 28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이 선박검사기술협회를 방문하였다.

협회는 방문단을 맞아 정부의 선박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 해양안전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선박검사제도 등을 소개하였다. 세계해사대학은 IMO가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써 해사관련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난 1983년 스웨덴 말뫼에 설립한 석사과정의 전문교육기관이며 현재 세계 58개국의 유학생 200여명이 재학 중이며, 졸업 후 본국에 돌아가 국제해사업무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 세계해사대학 학생대표의 인사말 장면

△세계해사대학 재학생은 지난 4월 26일 선박검사기술협회를 방문하여 해양안전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우리나라의 선박검사 제도를 접하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 해사대학 방문단과 함께 갯벌타워앞에서 기념촬영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와 자매결연협약 체결

협회는 지난 4월3일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소재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와 자매결연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자매결연 협약은 협회의 미래의 고객인 해양과학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보다 현장감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선박의 운항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안전의식도 고양시키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박검사기관과 해양·수산관련 고등학교와의 자매결연이 이루어진 것이며 협회는 앞으로도 전국의 12개 해양·수산계 고등학교와 자매결연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 협회와 인천해양고와의 자매결연 협정서 교환 장면 -



- 자매결연 협약체결 기념촬영 -

백두대간 종주주년 기념산행

지난 4월 8일 본부 및 지부에서 108명의 임직원 및 그 가족들이 참가한 가운데 백두대간 종주 17번째 구간인 중부지방의 삼마골재~우두령 구간에서 1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백두대간 종주대는 지난해 4월 9일 지리산 자락 '주촌'에서 시작한 이래 총 17차례에 걸쳐 연인원 398명이 참가하여 204km를 산행함으로써 전체 구간 734.4km의 약 3분의 1을 주행하였다. 특히, 이번 산행에서는 행운권 뽑기 등의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노사간의 화합·단결과 조직의 결속을 다지는 한마당이 되었으며, 산행중에 충청도, 전라도 및 경상도 3개도가 만나는 해발 1200m의 삼도봉에서 주변의 쓰레기를 수거하여 자연보호 및 나라사랑을 직접 실천하기도 하였다.



△ 해발 1200m의 삼도봉에서 기념사진

△ 협회는 지난 4월 8일 108명의 임직원 및 그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삼마골에서 우두령 구간에서 백두대간 종주 1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 노사간의 화합·단결의 한마당

완도지부 자매결연 어촌계 방문 봉사활동 실시



협회 완도지부(지부장 강종수)는 지난 4월21일 춘계 체육행사 활동을 어촌계 방문 봉사활동으로 대체하여 자매결연 흑일리 어촌계를 방문했다.

이날 완도지부 직원들은 어촌계에 선박의 수리에 필요한 공구 박스를 기증하는 한편 흑일리 지역 선박들에 대하여 기관실내 전선을 정비하는 등 안전점검을 수행했다.

또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마을 주변 해안의 환경정화 활동도 실시하여 어촌계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한편 이날 행사의 마지막인 다과회를 겸한 간담회에서는 완도지부직원을 비롯한 어촌계원 등 20여명이 참석하여 어촌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고 어촌계장은 5월8일에 있을 이 지역 ‘아버이 날’ 행사에 완도지부 직원들을 초대하는 등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어촌 봉사활동을 마감하였다.



△ 흑일리 어촌계에 공구박스 기증



△ 마을선박에 대한 안전검사



△ 어촌계 주변 환경정화 활동 실시

생/각/해/봄/시/다

마음의 눈물

눈에 흐르는 눈물은 보이지만 마음에 흐르는 눈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참 슬픔은, 얼굴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아닌,
 마음에 고이는 보이지 않는 눈물 안에 있습니다.
 보이는 눈물은 누구나 닦아 줄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눈물은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닦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물, 감춰진 아픔, 웃음 뒤의 외로움, 즐거움 뒤의 한숨,
 희망 안의 절망을 치유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면 보입니다. 깊이 사랑할수록 깊이 숨어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출처 : 좋은생각)

